

나를 찾아가는 학교, 미래를 만드는 학교

2020년 4,5월호

1. 사상 조유, 온라인 개학

‘코로나 19’로 인해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을 맞게 되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만큼,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합심하여, 머리를 맞댄 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 준비에 들어갔다.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지 못한 학교는 조용하고 쓸쓸했다. 하지만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각종 기자재를 활용하여 각 교실에서 수업 영상을 찍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열의 덕분에 금세 온기를 되찾았다. 학생들은 없지만, 3월부터 쉽 없이 학교에 출근하시어 업무에 몰두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고,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교육부의 지침에 지치고, 화가 날 법도 한데, 학생들만 생각하며 온라인 개학 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존경스러웠다.

매끄러운 시작은 아니었지만, 교사도 학생도 서서히 온라인 수업 환경에 적응해 나갔고, 교실 안에서 실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이 이 정도일 줄이야. 일상적으로 누렸던 순간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활짝 피었다가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비가 장관인데, 올해는 학생들이 이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하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못내 아쉽다.

2020-04-09

아직도 열리지 못한 채 학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교문



4월 9일, 3학년을 시작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고, 16일 부터는 1,2학년 온라인 개학도 시작되었다. 원활한 원격 수업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영상을 찍으시는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학교는 오늘도 후끈후끈. 각자의 집에서 아침부터 열심히 출석체크, 학급조회도 하고, 수업을 들었을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는 용기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020-04-16

3. 열화상 카메라 설치



4월 22일, 학교로 열화상 카메라 2대가 도착했다. 이에 따라 등교 개학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5월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그 누구도 등교 개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04-22

4. 올해 첫 학력평가는 집에서 원격으로

당초 3월 12일에 실시될 계획이었던 서울시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코로나 19로 인해 네 차례나 연기되었다. 3학년만 등교하여 치러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결국 각자의 집에서 원격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모든 학년이 4월 24일 원격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4월 23일 아침 일찍 학교로 도착한 시험지들을 선생님들께서 팔 걷고 운반하여, 분배하는 작업을 하시며 학교로 잠시 등교하여 시험지를 수령 해 갈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 학교의 경우 ‘구글폼’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학교 자체적으로 채점하기는 하지만, 따로 성적처리 되지는 않는다.

2020-04-23



2. 온라인 개학 시작

2020학년도 온라인 개학 일정

휴업 명령		1차: 3월 2~6일 (5일)					2차: 3월 9~20일 (10일)										3차: 3월 23일~4월 3일 (10일)					적용 기간
학년		4월																				
		6	7	8	9	10	13	14	16	17	20	21	22	23	24							
고	3	4차 휴업 (3일)				온라인 개학																
	1~2	(7일)				온라인 개학																
중	3	(3일)				온라인 개학																
	1~2	(7일)				온라인 개학																
초	4~6	(7일)				온라인 개학																
	1~3	(9일)				온라인 개학																

*자료=교육부

모처럼 학교 교문이 복직였다. 학력평가 시험지를 받으러 오랜만에 등굣길에 오른 학생들과 학생들을 반갑게 맞아 주시며 손수 시험지를 나눠 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따스한 햇살과 함께 어우러

졌다. 학생들이 교실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지만, 이렇게라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느 때 보다 감사하다. 2020-04-24

5. 학부모 방문의 날 (4월 24,27,28일) 취소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교의 소식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소식을 전해 드리기 위해 4월 24, 27,28일 3일 간 '학부모 학교 방문의 날'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모든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다.

전염병으로 인한 개학 연기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누구하나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답답함, 궁금증 해소를 위해 준비되던 행사였다. 그런 행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아쉬움도 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중하여 등교 개학을 하루라도 당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다 같을 것이다. 2020-04-28

6. 교생실습 시작, 그리고 끝

이런 일은 처음이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없는 학교에서 교생실습이 시작되었다. 등교 개학일이 발표되었지만, 교생실습 또한 교직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다. 학생들과 직접 마주하고, 수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려서 굉장히 아쉬울 것이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외의 다양한 일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온라인 개학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교생들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2020-05-04



교생 수료식을 끝으로 2주간의 교생실습이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실습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고, 학생들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짧게 느껴진다. 교생들은 강의 계획서를 짜 보고, 온라인 강의도 제작해 보고, 담당 선생님의 수업 시연도 참관하며

교직의 꿈을 현실화하기 위한 발돋움을 했다.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해 주셨다. 훗날 교사가 되어 2020년 5월, 코로나19가 만들어 낸 '학생 없는 교생실습' 이야기를 학생들 앞에서 풀어 놓으며, 그날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 2020-05-15

7. 학생 없이 맞이한 스승의 날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수줍게 다가가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스승의 날 행사가 올해는 학생 없이 진행되었다. 카네이션도 생략되었다. 올해는 30년 근속교사 한 분(엄 황 행정실장님), 20년 근속교사 두 분(오만근 선생님, 김미향 선생님), 10년 근속교사 두 분(장준혁 선생님, 박보령 선생님) 이렇게 많은 선생님께서 근속교사 표창을 받으셨다. 축하를 위해 31대, 32대 이기현(18회) 총동창회장님, 임우경(22회)동창회 동우회 지원본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시어 자리를 더욱더 빛내 주셨다.

우리 학교의 역사 속에는 늘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신다. 여느 해 보다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근속교사 표창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다소 조용히 치러진 수여식은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도 경희고등학교만을 위해 열심히 힘써 주시고, 지금도 달리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의 노고를 모르지 않기에 많은 학생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축하를 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8. 기다리고 기다리던 등교 개학

드디어 등교 개학이 시작되나 했다. 5월 13일 3학년을 시작으로 20일에는 2학년이 그리고 27일에는 1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길에 오를 예정이었다. 학교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학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그러나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또 한 번 개학이 일주일 쯤 연기되고 말았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늘이 원망스럽다.

5월 20일. 3학년 학생들이 일제히 등교했다. 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던가. 모두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교실에서 함께 모였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없이 훌륭한 음악으로 들리는 교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소설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여우의 말이 떠오르는 하루다. 우정, 사랑...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2020-05-20



9.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될 경희고의 3,4,5월

2학년 등교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아직 신입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야 조금 학교가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매 년 있었던 개학식도 없고, 신입생 입학식도 없고, 선후배 대면식도 없었다. 봄 소풍도 취소, 수련회와 수학여행도 연기되었다. 봄바람과 꽃도 모두 지나가 버려 이제 반팔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되었다. 신입생들은 새 교복을 맞춰놓고, 동복은 건너뛴 채 하복을 다시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 너무나 많은 2020년 5월이다.

이제 색다른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된 경희고등학교 안에 웃음과 활기가 가득 차게 될 일만 남았다. 중요한 것은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우리의 3,4,5월은 특별했다. 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모두의 같은 생각이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19가 어서 빨리 뿔뿔히 나갔길.

2020-05-27